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2010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개설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4동 3056-6번지

대표전화: 053-650-3000, 호스피스·완화병동(B5-1병동): 053-650-455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호스피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의료사도직의 측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1994년 11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말기암환자와 그의 가족들의 어려움에 함께 나누며 병동 간호사를 중심으로 병실봉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원 봉사자 교육을 실시한 후 간호부와 원목실 중심으로 호스피스팀과 첫 모임 활동을 산재형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해 왔습니다. 호스피스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성물판매소(원내) 운영하며 후원회를 창립하였고, 2002년부터 대구가톨릭호스피스협회와 연계한 가정호스피스 활동을 해왔으며 첫 사별가족모임과 퇴원한 호스피스 대상자 중심으로 가정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면서 매년(40~50명) 신규 자원 봉사자 교육 및 심화교육, 사별 가족 모임 및 추모제, 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2008년 9월 호스피스 운영위원회가 구성 되고 다학제팀을 만들었습니다.

2010년 본원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호스피스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지역의 여러 곳에 널리 알리고 호스피스의 새로운 인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눈물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동행해주며 직접 체험하고 느낀 순수한 글들을 모아 <아름다운 동행> 사례집을 발간했으며, 그리고 2010년 8월 본원 5층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 신설되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완화의료병동은 구관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늑하고 조용하며 총 11병상(5인실 2개, 1인실 1개), 임종방(은혜방), 상담실, 샤워실 그리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휴식과 면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족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족실 내에는 환자와 가족들이 입을 수 있도록 여러 장르의 150권 가량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고 또 완화의료팀의 인력 구성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화의료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약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2~3회 정기적임 모임과 매일 오전 담당의와 간호사는 대상자의 상태 및 치료계획을 함께 나누며 환자와 가족은 사전 예약 시 원하는 분야의 담당자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완화의료 병동 입원시 완화·의료에 준하는 의료 또는 간호 외에도 본원 자원봉사자(45명)들의 세발, 목욕, 온열요법, 족욕, 발마사지 등의 신체 돌봄 서

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완과 감정을 표현하며 영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매주 활동하고 있는 완화프로그램 소개**

(환자가 부담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 중입니다.)

요일	화	수	목	금
오전	발마사지 미술요법	보호자 상담 발마사지	음악요법 보호자 교육	웃음요법 보호자 상담

퇴원 후에도 전문간호사와 봉사자를 연계, 가정방

문을 통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종 후에도 장례봉사(입관, 연도, 장지 봉사)를 하며 사별가족을 위한 전화상담, 가정방문, 위로카드 발송과 년 1~2회 사별가족 모임 및 추모미사를 시행하여 유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을 극복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완화의료병동 식구들은 말기암 환우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여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을 돌보고 있으며 임종 후 남은 가족들에게 용기와 지지를 보내며, 완화의료팀 모두가 늘 함께 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병동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